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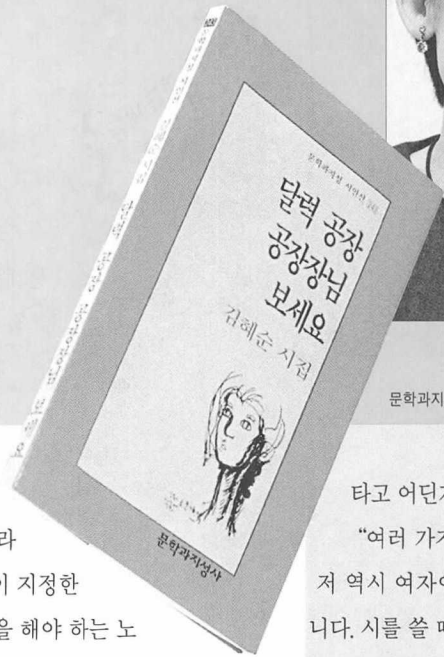
일상을 지배하는 권력 조롱하는 풍자정신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펴낸 김혜순씨



김혜순씨

문학과지성사/B6변형/172면/5000원



“달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사람들은 달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달력이 지정한 날짜에 부가된 일을 해야 하죠. 이 세계의 안과 밖에서 규칙을 운행하는, 규칙을 정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김혜순 시인(45, 서울예대 문창과 교수)이 시집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문학과지성사)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 김시인은 특유의 상상력과 탄력적인 언어로 일그러진 세계와 그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을 풍자하고 조롱한다.

현대인의 서글픈 운명 그려

시인은 자서에 “세상의 모든 달력 공장 공장장님께 / 먼저 밤낮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세세년 년토록 운항하시는 그분께 / 숫자 나라의 시간 윤전기 노동자인 우리들 앞에서 / 감독을 게을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모든 아버지 공장장님들께”라고 적으면서 ‘세계의 규칙을 정하는 자’들에게 넌지시 비웃음을 던진다.

그리고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라는 시를 통해 시인은 말한다. “이 음악은 이제 너무 들었어요 지겨워요 / 열두 곡이 다 흐른 다음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 스위치를 누르면 눈이 휘날리지요 / 다시 누르면 빗꽃 축제, 아니 예요?... / 왜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형량을 시작해야 하나요? / 나는 벌써 이 음악을 다 외워버렸어요 귀에 못이 박일 정도예요 / 그러나저러나 나한테서 뭘 더 찍을 게 있다고 윤전기는 쉬지 않고 / 자꾸만 같은 숫자만 찍어대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서글픈 운명에 대한 탄식이다. 그의 시에 따르면, 인간은 ‘달력 공장 공장장님’이라는 ‘간수’에 의해 관리당하고 감독당하는, ‘매일 아침 새로운 형량’을 받아야 하는 ‘죄수’인 것이다.

“달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사람들은 달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달력이 지정한 날짜에 부가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죠. 이 세계의 안과 밖에서 규칙을 정하고 운행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1979년 등단한 이후 그는 일곱권의 시집을 냈고, 이리저러한 상을 받는 동안 그의 시력(詩歷)도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어 섰다. 그래서인가, 이번 시집에 실린 시들은 차갑고 날카로웠던 지난 시들에 비해 한층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다.

“시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 아닌 것을 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 또 다른 현실, 그 공간을 알려주는 것 또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방식이 어느 정도 도식적이었죠. 이번 시집에서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제 시가 부드러워진 이유 중의 하나겠죠.”

《불쌍한 사랑기계》 이후 그의 시에서 분열된 자아를 발견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번 시집에서도 그와 시는 분열되고, 그와 그 자신 역시 ‘천 개의 강’처럼 갈라진다. 그의 몸 속에는 ‘저곳으로 가고 싶은, 간혀서, 간혀서 흐르는 강이 출렁’ 거린다. 그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운명’을 타고 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이렇게 말한다. ‘초침 같은 한 방울 물이 내 뺨을

타고 어딘가로 또 흘러가네’.

“여러 가지 ‘나’를 함께 살고 있는 거지요. 저 역시 여자이고 엄마인 동시에 대학 선생입니다. 시를 쓸 때는 이런 ‘나’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 나옵니다. 물론, 시를 쓸 때마다 여러 가지 나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요.”

늘 새로운 시세계 지향해

그는 “시는 가장 주관적면서도 객관성의 끝간 데를 노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그의 시세계를 가리켜 평론가 정과리씨는 ‘망가진 이중 나선’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 어쩌면 독자들이 그의 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가 어렵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눈치다.

“독자들 역시 한편의, 혹은 한편의 시를 읽으면서 그들이 가진 정신의 그릇 크기 만큼 시를 가져갈 수 있죠.”

그는 아직도 지독한 시의 열병을 앓고 있다. 일기를 쓰려고 해도 시가 흘러나와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는 스스로를 “불쌍한 시 쓰는 기계”라고 부른다.

그가 가장 아끼는 시집은 언제나 최근의 시집이다. 그는 한편의 시집을 내고는 곧 그 세계를 벗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간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시가 언제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유이자, 또한 우리가 그의 시를 늘 새롭게 읽는 이유다. - 최갑수 기자